

# “한국-대만 체조선수 만나 함께 성장해요”

대만 여자 대표팀 韓 전지훈련 24일까지 광주체고 체조장서 도마·마루 등 기본기 훈련 집중 상호 장단점 강화 및 보완 기대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어색한 발음이지만 훈련을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우렁찬 인사가 광주체고 체조장에 울려 퍼졌다. 그 주인공은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전지훈련 중인 대만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

리야(Li Ya) 감독이 이끄는 대만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은 지난 11일부터 광주체고를 베이스캠프로 담금질에 한창이다. 선수 다섯 명과 코치, 트레이너가 동행했고 오는 24일까지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이 한국, 그중에서도 광주를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데는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부 감독의 존재가 컸다. 한국 체조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과 전국체전 역사상 첫 7관왕 문건영을 육성한 오 감독은 기계 체조 중에서도 도마 지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리 야 감독은 “도마와 마루에서 한국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며 “특히 오상봉 감독이 도마에 있어서는 최고로 알려져 있다. 한국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광주체고가 아직 학기 중인 탓에 대만 선수단은 오전에는 자체 훈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체고가 오는 19일 여름 방학에 들어가면 오전과 오후 모두 합동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 훈련을 통해 대만 선수단은 기본기를 다지고 광주체고 선수단은 미적 표현을 더 풍부하게 한다. 오 감독이 기본기



오상봉(왼쪽) 광주체고 체조부 감독이 광주체고 체조장에서 대만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 선수단에게 도마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광주체고 체조부와 대만 여자 체조 국가대표팀이 광주체고 체조장에서 합동훈련에 앞서 기념 촬영에 응하고 있다.

에 강한 지도자라면 리 야 감독은 미적 표현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지도자다.

특히 광주체고 선수단은 리 야 감독이 준비한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훈련을 경험하기도 했다. 대만 선수단에게도 평소 훈련에서 활용하던 음악이 아닌 K-POP(케이팝)으로 무용을 준비해 색다른 경험이었다.

문건영(광주체고 3)은 “우리나라에 비

해 훈련 강도가 높은 것 같다. 몸풀기나 본 훈련 모두 굉장히 길게 하고 고강도로 하는데 체력이 대단한 것 같다”며 “본 훈련에서는 반복적인 동작 연습을 많이 하면서 자세 감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될 때까지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만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느낀 점을 말했다.

홍석경(광주체고 1) 역시 “다른 나라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배울 점도 많은 것 같다. 기술에서 실수가 최대한 없게끔 노력하는 것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대만은 무용 동작에서 크게 몸을 쓰면서 예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다. 저도 거울 보면서 몸을 더 써보고 더 크게 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선수들에게는 이번 전지훈련이 평소 예능과 드라마, K-POP 등을 통해 생

각해왔던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다. 대만 선수단은 훈련 외 시간에는 광주 시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황쯔싱(huang tzuhsing·20)은 “대만은 국가대표팀끼리 훈련을 하다 보니 굉장히 익숙한 분위기인데 광주체고는 학교 팀이어서 편안한 분위기 같다”며 “맛있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하면서 노는지 소통했는데 티비로 보던 것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코원(yang ko wen·17) 역시 “학교 체조장인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서 놀랐다. 국가대표 훈련장 수준에 가깝다”며 “케이팝 무용을 함께 하면서 말 대신 몸짓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한국 음식을 직접 먹어본 것도 좋았다”고 밝혔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AI 페퍼스 박사랑(왼쪽부터) 이한비, 한다혜, 목포여상 이주아

## 페퍼저축은행 박사랑·이한비·한다혜, 국대 전훈 참가

### 목포여상 이주아도 발탁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박사랑과 이한비, 한다혜가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유럽 전지훈련을 떠난다. 이번 대표팀에는 목포여상 이주아도 깜짝 발탁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에서 실시되는 유럽 전지훈련에 참가할 한국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소집 명단은 14명으로 꾸러졌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세터 박사랑과 리베로 한다혜가 FIVB(국제배구연맹)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이어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고 강소희(한국도로공사)와 김다인, 정지윤(이상 현대건설) 등

주축 선수들도 소집됐다.

페퍼저축은행 아웃사이드 히터 이한비는 나현수(현대건설)와 함께 모랄레스호에 최초 발탁됐다. 목포여상에 재학 중인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는 청소년 대표팀에 이어 성인 대표팀까지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모랄레스호는 지난 14일 경기 중인 흥국생명 연수원에 소집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27~29일에는 크로아티아, 다음 달 1~3일에는 루마니아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페르난도 모랄레스 감독은 대한배구협회를 통해 “발리볼네이션스리그를 통해 대표팀이 많이 발전했고, 동시에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확인했다. 전지훈련과 친선경기를 통해 내년 발리볼네이션스리그와 대표팀의 미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 KIA, 키움 출신 예진원 영입... “외야 선수층 보강 도움 기대”



키움히어로즈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외야수 예진원(사진)이 KIA타이거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받았다. 경남고 시절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타자로 평가받았던 예진원이 광주에서 잠재력을 터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KIA는 외야수 예진원을 웨이버 트레이드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예진원은 172cm와 82kg의 체격을 지닌 좌투좌타 자원으로 지난 9월 키움으로부터 웨이버 공시된 바 있다.



예진원은 유일하게 KIA의 영입 의사를 받았다. 웨이버 공시된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7일간 9개 구단의 지명을 받을 수 있다. 복수 구단이 지명할 경우 공시일 기준 성적 역순으로 우선권이 주어지는데 KIA는 당시 선두로 가장 늦은 9순위였다.

예진원은 지난 201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전체 18순위)로 넥센히어로즈(현 키움히어로즈)에 지명됐다. 프로 입성 후 6시즌 간 117경기에 나서 타율

0.174를 기록했다. 퓨처스리그에서는 가능성을 보였다. 데뷔 첫해인 2018시즌 71경기에서 타율 0.347을 기록했고, 올 시즌에는 26경기에서 타율 0.323을 기록하고 있었다. 통산 기록은 7시즌 간 374경기에서 타율 0.290이다.

KIA는 예진원을 미래 자원으로 육성할 의지를 내비쳤다. KIA 관계자는 “예진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며 “외야 선수층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 동강대 야구,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3위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첫 우승 도전에 나섰던 동강대학교 야구부가 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3위로 대회를 마쳤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는 지난 16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강릉영동대와 준결승전에서 1-7로 졌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대회 준우승 이후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했던 동강대는 이

번 대회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동강대는 조별리그 A조에서 2승2패로 중양대에 이어 조 2위를 차지하며 광주·전남 대학팀 가운데 유일하게 본선에 올랐다. 동강대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신성대에 7-0 월드게임을 거뒀고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패한 중양대와 8강에서 다시 맞붙어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7-6 역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동강대는 강릉영동대와 결승에서 8회까지 1-1로 팽팽한 승부를 벌이다 9회초 투수 김우현과 김강로의 부진투로 대거 6실점하며 무너졌다.

한편 동강대는 오는 29일 경남 밀양에서 개막하는 ‘제 5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 웅지세무대와 첫 경기를 치른다.

동강대는 또 오는 9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과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시대표로 출전한다.

최동환 기자